

# 미용학 전공 여대생 관점에서의 일제 강점기 신여성 패션스타일에서 발산되는 여성성에 대한 요인 분석

박장순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Factor analysis on femininity

Jang-Soon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Song Won University

요 약 패션은 미용과 함께 신분, 지위, 혼인 여부, 개인 성향 등을 표현하는 시각적 수단이며 과거의 생활습관까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실용문화 유산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미용뿐만 아니라 여성 정장, 하이힐, 모자, 장갑, 핸드백, 목걸이 등과 같은 패션도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부각하면서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봉건적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저항하면서 시대적 선도성을 발휘한 일제 강점기 신여성은 혁신적 여성상의 모범이며 21세기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부응하는 여성성의 표본을 제시하기 때문에 진정한 양성평등(兩性平等) 사회를 향한 원동력이자 발전적 미래설계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한다. 신여성들의 패션스타일에서 발산되는 여성성에 대하여 뷰티 전공 여대생 관점으로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하여 건설적 자조론(自助論)을 정립한 여성성의 표본 제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현대 여성들의 자존감 정립과 성공하는 혁신적 여성성의 확고한 기틀도 마련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신여성, 패션, 미용, 여성성, 자조론

Abstract Fashion is a visual means of expressing identity, position, marital status, personal inclination, etc. along with beauty, and it is an important practical cultural heritage that can infer past lifestyle habits. In modern society, fashion such as women's suits, high heels, hats, gloves, handbags, necklaces, etc., as well as beauty such as hair, make-up and nail art. It is a model of innovative women's prize and presented a sample of femininity that responds to the radical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it is a driving force for a genuine gender equality society. It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futuristic future design.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factors of women 's sexuality from the viewpoint of beauty college students in the fashion style of the newcomers, makes it possible to present a sample of women' s sexuality that establishes constructive self - help theory. It is thought that a solid foundation of femininity will be provided.

Key Words : Modern woman, Fashion, Beauty, Femaleness, Self help theory

## 1. 서론

현대사회는 광속(光速)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으며, 현대인의 가치관과 사회규범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패션(fashion)은 미용(美容)과 함께 본인의 신분, 지위, 혼인 여부 등을 표현하는 사회질서의 수단이며 당대 민속, 회화, 문학과 같은 생활습관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실용문화(實用文化)으로 전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1]. 여성의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와 같은 미용뿐만 아니라 여성 정장, 하이힐, 모자, 장갑, 핸드백, 목걸이 등의 패션스타일은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경쟁력을 배가(倍加)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개인의 역량과 함께 반드시 겸비해야 필수요건으로 정착되었으며, 패션과 미용 분야는 더욱 전문화되는 추세이다[2].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 도처(到處)에 만연한 현실 속에서 외양으로 표출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도 날로 증가 추세이며[3], '외모는 곧 경쟁력'라는 사회적인 풍조 속에서 현대인의 외모 열풍과 함께 화장품과 패션시장은 활성화를 맞고 있다[4].

일제 강점기의 일반 여성들은 피동적, 노출적, 기호적, 매혹적 여성을 자연적이며 본질적인 성향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성은 패션으로 승화되었다[5]. 반면 신 여성은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전통에 저항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지닌 반(半) 패션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혁신적 여성상의 모범을 보인 신 여성은 21세기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부응하는 건설적 자조론(自助論)을 정립한 여성성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성에 대한 또 다른 지배적인 여성성은 여성사회 개념의 변화를 암시하며 [6], 이는 진정한 양성평등(兩性平等) 사회를 향한 원동력이며 발전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 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발산되는 여성성을 뷰티 전공 여대생의 관점에서 요인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과학기술사회 내에서 현대 여성의 발전적 가치관 및 혁신적인 여성성에 관한 정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여성의 자존감 정립과 성공하는 모범적인 여성성 정립의 시발점(始發點)으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 2. 연구 방법

### 2.1 측정 도구의 구성

일제 강점기 신여성들의 패션스타일의 특징 중 여성성을 발산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측정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모두 미용학을 전공으로 하는 여대생으로 설정하였다. 신 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에 관한 인식 4문항과 학년, 연령,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성성에 관한 인식 문항의 신뢰도(Cronbach\_α)는 0.794로 0.7 이상 수준을 나타내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2.2 자료의 분석방법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종합대학교 뷰티학 전공 여대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령된 128개의 설문지 중 무응답이거나 무성의한 설문지 5부는 제외하여 총 123개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통계분석 패키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통계검증에 있어서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일제 강점기 신 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 3. 분석 결과

###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vision	frequency (persons)	Composition ratio (%)
grade	1	39.8
	2	20.3
	3	26.8
	4	13.0
age	20-23	79.7
	24-26	13.0
	27 years old or older	7.3
Type of residence	Metropolitan city	57.7
	Small cities	26.0
	Farming and fishing village	16.3
Marital status	single	94.3
	married	5.7

p<0.05

조사 대상자 123명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학년별로 1학년은 49명(39.8%), 3학년 33명(26.8), 2학년 25명(20.3%), 4학년 16명(13.0%) 순이며 연령은 20-23세 98명(79.7%), 24-26세 16명(13.0%), 27세 이상 9명(7.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형태는 광역시 71명(57.7%), 중소도시 32명(26.0%), 농어촌지역 20명(16.3%) 순이었고, 결혼 여부는 미혼 116명(94.3%), 기혼 7명(5.7%)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표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20대 초반, 광역시 거주, 미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신여성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을 파생하는 요인 분석

조사된 123명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일제 강점기 신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함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이란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통계적 검증방법이다.

#### 3.2.1 서양식 스커트의 착용

일제 강점기 신여성들이 착용한 서양식 스커트는 단순한 서양식 치마가 아닌 서구 근대사회가 낳은 전반적인 문화현상과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속성이나 사회적 특징을 의미한다[7]. 1920, 30년대 여성 패션의 특징은 서구 모더니즘과 기능주의의 흐름을 따르는 현상으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졌는데[8], 이러한 서양식 스커트의 착용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Table 2에서 제시된 것으로 진취성 34.1%, 자존감 26.8%, 사회적 독립성 26.0%, 창의성 13.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p < 0.05$ ),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5$ ).

학년에 따른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성의 차이는 3학년의 경우 자존감을 느낀 학생이 3.0%로 1학년 44.9%와 4학년 37.5%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9.4%로 타 학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연령대에서는 24-26세의 진취성이 56.3%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Table 2.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western skirt wear

		Self-est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chi^2$ (p)
		em	e				
All	frequency	33	42	32	16		
	ratio(%)	26.8	34.1	26.0	13.0		
1 Grade	frequency	22	10	10	7		
	ratio(%)	44.9	20.4	20.4	14.3	25.0	
2 Grade	frequency	4	12	5	4		
	ratio(%)	16.0	48.0	20.0	16.0	(0.003)	
3 Grade	frequency	1	16	13	3		
	ratio(%)	3.0	48.5	39.4	9.1		
4 Grade	frequency	6	4	4	2		
	ratio(%)	37.5	25.0	25.0	12.5		
20-23 age	frequency	29	31	25	13		
	ratio(%)	29.6	31.6	25.5	13.3	11.2	
24-26 age	frequency	0	9	6	1		
	ratio(%)	0.0	56.3	37.5	6.3	01	(0.082)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4	2	1	2		
	ratio(%)	44.4	22.2	11.1	22.2		
metropolitan city	frequency	20	24	19	8		
	ratio(%)	28.2	33.8	26.8	11.3	2.68	
Small cities	frequency	6	12	8	6		
	ratio(%)	18.8	37.5	25.0	18.8	4	(0.847)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7	6	5	2		
	ratio(%)	35.0	30.0	25.0	10.0		
single	frequency	30	39	32	15		
	ratio(%)	25.9	33.6	27.6	12.9	2.81	
married	frequency	3	3	0	1		
	ratio(%)	42.9	42.9	0.0	14.3	0.42	1)

$p < 0.05$

#### 3.2.2 신체 윤곽선의 강조

패션은 인간의 삶과 자아(自我)를 창조하는 완전한 비주얼 예술형식이며, 사회적 위치와 도덕적 차원을 전달하는 가장 가시적인 이미지 매체이다[9]. 현대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미국 신여성의 영향을 받은 주름 잡힌 짧은 치마인 플래퍼는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신여성들이 즐겨 입으면서 독특한 외모와 성향을 표출하였다[10]. 점진적으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착용한 신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스커트 길이는 1920년대 후반에는 무릎까지 짧아졌으며, 코트는 허리에 벨트를 착용되면서 웨이스트 라인의 플레이어가 드리워진 여성적 패션스타일이 유행하였다[11].

신여성 패션스타일의 특징 중 신체 윤곽선 강조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Table 3과 같이 자존감 34.1%, 진취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 반면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2, 3, 4학년의 경우 진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5% 이상인 반면 1학년은 8.2%에 그쳤다. 또한 자존감을 느낀 학생의 비중이 1학년 53.1%, 4학년 43.8%인 반면 2학년은 20.0%, 3학년은 12.1%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body contour emphasis

		Self-est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chi^2$ (p)
All	frequency ratio(%)	42 34.1	32 26.0	27 22.0	22 17.9	
1 Grade	frequency ratio(%)	26 53.1	4 8.2	7 14.3	12 24.5	29.976 (0.000)
2 Grade	frequency ratio(%)	5 20.0	9 36.0	6 24.0	5 20.0	
3 Grade	frequency ratio(%)	4 12.1	13 39.4	12 36.4	4 12.1	6.642 (0.355)
4 Grade	frequency ratio(%)	7 43.8	6 37.5	2 12.5	1 6.3	
20-23 age	frequency ratio(%)	36 36.7	23 23.5	22 22.4	17 17.3	6.642 (0.355)
24-26 age	frequency ratio(%)	2 12.5	6 37.5	5 31.3	3 18.8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ratio(%)	4 44.4	3 33.3	0 0.0	2 22.2	
Metropolitan city	frequency ratio(%)	21 29.6	18 25.4	15 21.1	17 23.0	9.521 (0.146)
Small cities	frequency ratio(%)	16 50.0	9 28.1	6 18.8	1 3.1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ratio(%)	5 25.0	5 25.0	6 30.0	4 20.0	
single	frequency ratio(%)	40 34.5	28 24.1	27 23.3	21 18.1	4.515 (0.211)
married	frequency ratio(%)	2 28.6	4 57.1	0 0.0	1 14.3	

p<0.05

### 3.2.3 하이힐 착용

양장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하이힐은 신여성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앞부분이 뾰족하고 발등에 띠를 대는 스트랩 펌프스와 구두코가 뾰족하며 발등을 덮는 스티치 등이 있었다[12]. 반면 19세기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소재로 변적이며 매끈한 질감을 지닌 에나멜 하이힐도 선보였다[13].

신여성의 하이힐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Table 4와 같이 자존감 30.9%, 진취성 30.1%, 사회적 독립성 20.3%, 창의성 18.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연령대에 따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정의 실시 결과는 학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Table 4.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wearing high heels

		Self-est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chi^2$ (p)
All	frequency ratio(%)	38 30.9	37 30.1	25 20.3	23 18.7	
1 Grade	frequency ratio(%)	27 55.1	8 16.3	6 12.2	8 16.3	31.103 (0.000)
2 Grade	frequency ratio(%)	5 20.0	13 52.0	3 12.0	4 16.0	
3 Grade	frequency ratio(%)	5 15.2	9 27.3	11 33.3	8 24.2	6.339 (0.386)
4 Grade	frequency ratio(%)	1 6.3	7 43.8	5 31.3	3 18.8	
20-23 age	frequency ratio(%)	33 33.7	29 29.6	20 20.4	16 16.3	6.339 (0.386)
24-26 age	frequency ratio(%)	4 25.0	5 31.3	3 18.8	4 25.0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ratio(%)	1 11.1	3 33.3	2 22.2	3 33.3	
Metropolitan city	frequency ratio(%)	25 35.2	21 29.6	14 19.7	11 15.5	4.540 (0.209)
Small cities	frequency ratio(%)	10 31.3	8 25.0	5 15.6	9 28.1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ratio(%)	3 15.0	8 40.0	6 30.0	3 15.0	
single	frequency ratio(%)	38 32.8	35 30.2	22 19.0	21 18.1	4.540 (0.209)
married	frequency ratio(%)	0 0.0	2 28.6	3 42.9	2 28.6	

p<0.05

학년에 따른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성의 차이는 2, 4학년의 경우 진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중이 각각 52.0%, 43.8%인 반면 1학년은 16.3%, 3학년은 27.3%로 낮았다. 거주지 유형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 3.2.4 액세서리 착용

‘양장 모습에 핸드백 대신에 얇다란 가방을 팔에다 끼고 날개가 꼬친 감정 모자를 썼다[14], ‘시계는 신여성들의 사치 양상을 전적으로 표출시키는 사물이었고 핸드백, 보석, 반지와 함께 과시욕이 강해 사치와 허영을 조장했다[15]’는 선행연구에서 보듯 신여성들의 모자, 장갑, 핸드백, 목걸이 등 액세서리 착용을 시대를 초월하였다.

신여성의 액세서리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자존감 34.1%, 진취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결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1, 2학년의 경우 자존감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각각 40.8%, 24.0%인 반면 3학년은 9.1%, 4학년은 6.3%로 낮았다. 또한 3학년은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0.3%로 타 학년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Table. 5.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accessory wear

		Self-est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chi^2$ (p)
All	frequency ratio(%)	30 24.4	33 26.8	22 17.9	38 30.9	
1 Grade	frequency ratio(%)	20 40.8	10 20.4	8 16.3	11 22.4	21.569 (0.010)
2 Grade	frequency ratio(%)	6 24.0	7 28.0	3 12.0	9 36.0	
3 Grade	frequency ratio(%)	3 9.1	11 33.3	10 30.3	9 27.3	
4 Grade	frequency ratio(%)	1 6.3	5 31.3	1 6.3	9 56.3	
20-23 age	frequency ratio(%)	26 26.5	27 27.6	15 15.3	30 30.6	6.743 (0.345)
24-26 age	frequency ratio(%)	4 25.0	2 12.5	5 31.3	5 31.3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ratio(%)	0 0.0	4 44.4	2 22.2	3 33.3	
Metropolitan city	frequency ratio(%)	23 32.4	17 23.9	13 18.3	18 25.4	10.827 (0.094)
Small cities	frequency ratio(%)	4 12.5	7 21.9	7 21.9	14 43.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ratio(%)	3 15.0	9 45.0	2 10.0	6 30.0	
single	frequency ratio(%)	30 25.9	31 26.7	21 18.1	34 29.3	3.528 90.317)
married	frequency ratio(%)	0 0.0	2 28.6	1 14.3	1 57.1	

$p < 0.05$

#### 4. 결론

본 연구인 일제 강점기 신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발산되는 여성성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1학년과 20-23세가 49명(39.8%)과 98명(79.7%)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 형태와 혼인 여부는 광역시 71명(57.7%)과 미혼 116명(94.3%)으로 많았다.

둘째, 서양식 스커트의 착용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진취성 34.1%, 자존감 26.8%, 사회적 독립성 26.0%, 창의성 13.0% 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자존감을 느낀 학

생이 3.0%로 1학년 44.9%와 4학년 37.5%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 비율은 39.4%로 타 학년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신체 윤곽선 강조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자존감 34.1%, 진취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3, 4학년의 경우 진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5% 이상인 반면 1학년은 8.2%에 그쳤다.

넷째, 신여성의 하이힐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자존감 30.9%, 진취성 30.1%, 사회적 독립성 20.3%, 창의성 18.7% 순으로 나타났다. 2, 4학년의 경우 진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중이 각각 52.0%, 43.8%인 반면 1학년은 16.3%, 3학년은 27.3%로 낮았다.

다섯째, 신여성의 액세서리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자존감 34.1%, 진취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1, 2학년은 자존감을 느낀 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40.8%, 24.0%인 반면 3학년은 9.1%, 4학년은 6.3%로 낮았다. 또한 3학년은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0.3%로 타 학년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본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성의 당당함을 표출한 신여성들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에 관한 요인들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과학기술사회에서 건설적 자조론(自助論)을 정립한 여성성 표현의 제시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현대 여성들의 자존감 정립과 성공하는 혁신적인 여성성의 기틀을 마련하리라 사료된다.

#### REFERENCES

- [1] J. S. Kim. (2013). *The Research of Hair accessories development to modernize classical hair style of Joseon dynasty period*. Doctoral of thesis, Young-san University.
- [2] H. J. Kwon & J. S. Park. (2016). The influences of Nutritional Convergent supplement on damaged nails treated by cosmetic procedur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4(3), 437-443.
- [3] S. H. Jin & Y. B. Kim & J. S. Park. (2017).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Inconvenience Due to Female Cancer Wearing Alopecia Wigs.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8), 417-422. DOI : 10.14400/JDC.2017.15.8.417
- [4] J. S. Park. (2018). Analysis of hair design formative factors in the women's one length hair style in the

- Imperial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479-484. KDC 326.41/ DDC 384.5
- [5] K. H. Choi. (2007). Sexuality Expressed in the 19C Fashion in Foucauldian Post-Structural Perspective-Focusing on femininity and masculinity represented in the mainstream & anti-fashion in the middle & latter of the 19C.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5(2).  
DOI : 10.29049/rjcc.2007.15.2.232
- [6] K. H. Choi. (2008). = A Study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Represented in Men`s and Women`s Fashion Magazine in Korea since 2000.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6(1). 1-21.  
DOI : 10.29049/rjcc.2008.16.1.1
- [7] H. S. Modernity. (1995).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y*. Cambridge. London : Polity Press.
- [8] E. J. Kim. (2013). *The changes of Korean Woman's fashion and consumption culture in Korea in the 1920s to 1930s*. Doctoral of thesis, Yon-sei University.
- [9] E. Wilson. (1985). *Adorned in dreams. Berkeley and Los Angeles*. Berkeley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0] M. J. Pai. (2008). *A Study on the Modern Fashion Design Applied by Flapper Look in 1920s*. Master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KDC 592.02
- [11] F. L. D. C. Committee. (1999). *Fashion big dictionary*. Seoul : Fashion Larg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DDC 746.9203 20
- [12] S. K. Yu. (1989). *A study on the changes in Korean women's Western-style clothing*. Doctoral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DDC 390.00951 17
- [13] M. J. Kim & H. S. Choi & Y. H. Kim & J. S. Ha & S. H. Choi & H. J. Go. (2010).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 Seoul : Gyomunsa. DDC 391.0094 22
- [14] N. C. Kim. (1939). *Love Aquarium*. Seoul : Inmusa
- [15] H. J. Kim. (2004). Study on the Attire of New Women Described Beol Geon Gon.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2). 211-223. KDC 381

박 장 순 (Jang-Soon Park)

[경력]



- 2009년 2월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뷰티산업학과 (공학 석사)
- 2013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미용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모발 생리, 미용 향장, 헤어

미용

· E-Mail : anima2929@hanmail.net